

오늘의 말씀묵상

본문 : 로마서 13:1-7(현대인의 성경)

1. 말씀

- 1 누구든지 정부 당국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력이 다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 2 그러므로 그 권력을 거역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권력을 거역하는 것이 되고 그런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 3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통치자가 두려울 것이 없으나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통치자를 두려워합니다. 통치자를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선한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 4 그는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악한 일을 하면 두려워하십시오. 그가 쓸데없이 칼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벌을 내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 5 그러므로 꼭 벌을 준다고 해서 복종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위해서도 복종해야 합니다.
- 6 이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은 세금도 잘 바쳐야 합니다. 당국자들은 이 일에 항상 힘쓰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 7 여러분은 그들에게 여러분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바쳐야 할 세금은 바치고 두려워할 사람은 두려워하며 존경할 사람은 존경하십시오.

2. 관찰

- 본문에서 눈에 띄는 단어나 구절은 어떤 것입니까?

→ _____

- 하나님은 본문에서 어떤 분으로 나타나십니까?

→ _____

3. 메시지

- 바울은 정부에 당국에 복종할 것을 말합니다.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1절)

→ _____

- '쓸데없이 칼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는 말은 어떤 경고를 포함하고 있고, 공권력의 사용에 어떤 한계나 책임을 시사한다고 생각하나요?(4절)

→ _____

-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세우셨다"는 이 말씀은 내 삶에 어떤 도전이나 불편함을 주니까?

→ _____

- 바울은 왜 정부 권위에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나요? 이것은 모든 경우에 해당할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어떻게 다가오나요? 순종과 저항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 필요한 지혜는 무엇인가요?

→ _____

- 부당하거나 불의해 보이는 권세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내가 동의하지 않는 권위에 대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태도를 취할 수 있을까요?

→ _____

- 세금이나 사회적 의무를 감당하는 데 있어 나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나요?.

→ _____

4. 적용

-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는 무엇입니까?

→ _____

- "선한 일을 하는 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라는 구절에서 선함과 악함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이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직장, 학교, 가정에서 내가 '선한 일'을 선택해야 했던 순간이 있다면 나눠 보세요.

→ _____

- 5. **묵상 나눔**(아래 묵상 나눔은 함께하는교회 교인 한 분이 개인적으로 적은 묵상 글입니다. 함께 읽으면서 묵상을 처음 시작하려는 분들이나, 현재 묵상을 어떻게 해 나가

고 있는지 참고하고 싶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롬 13:1-7 (통치자들에 복종)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는 본문은 다양한 논쟁을 낳는 구절로 선포된 의도와는 다르게 때로 악용되기도 해왔습니다. 복음 선포가 진전될 수 있도록 교회 내 질서 유지의 필요에 의해 강조된 말씀이, 식민지 국민들을 억압하는 문구로 사용되기도 하고, 독재 정부가 저항 세력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사용된 아픈 역사도 있습니다. 지상의 모든 권력은 권력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지상 권력을 겸손하게 만드는 선언임에도 불구하고, 임명 받은 사명대로 권세를 행사하지 않는 악한 권세들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권력을 행사할 권한을 허락하셨으며, 성도들은 선한 양심으로 이에 순응하고 존경의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다만 권세자들은 올바르게 권력을 행사할 때에만 이러한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만약 권세를 남용할 경우에는 하나님의 진리의 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성도의 순종은 그것이 하나님의 법에 합당할 때에만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반대로 불의한 권력자들에게 저항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저항하는 것이 될 수도 있지는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한 번쯤은 깊이 묵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6. 기도